

# 나는 행복할꺼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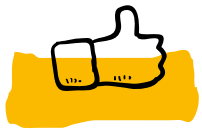
만약 용감히 나누고자 한다면...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오 5,3)



## 목표

다른이들과 내가 필요한 것을 대조할 줄 알며 주는 것과 받는 것을 배운다.



## 어땠나요?

처음에는 수용의 단계가 와야 한다. 여기서는 체험과 직접 겪은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대화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나 환영을 받고 어색함 없이 마음편히 느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방법을 찾아내는 창의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에 했던 모임때 결정했던 목표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라고 다시 되물어보는 것도 좋다.



## 모임을여는활동

비디오와 묵상

“관대함에 대한 힘” 를 보고 이에 대해 생각해 본다



소요시간: 영상 3분5초, 묵상30분정도

준비물: 비디오를 보기 위한 장비 각 그룹을 위한 종이와 펜, 도시지도

전개방법: 비디오클립을 보기 전에 3-4개의 소그룹으로 나뉘어 “너그러움”이란 개념에 대해 브레인스토밍을 한다. 각 그룹안에서 자신에게 또는 다른 이들로 부터 실제로 너그러움을 체험했던 사건에 대해 생각하며 너그러움을 표현하는 정의를 함께 내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특징 세가지를 찾는다. (예를 들어 무료, 보편성, 풍요로움 등등) 그 다음, 모든 참석자들은 그룹안에서 나온 체험담이나 결론을 서로 나눈다.

제안: 이 영상은 너그러운 어떤 사람을 보여주며 상호적 배려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무엇을 연습니까?”입니다. 생각할 기회를 주기위해 비디오클립 영상 중, 1분 49초 지점에서 멈추고, 주인공이 이런 라이프스타일에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클립의 마지막 부분은 그룹 예상대로 끝나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결론: 마지막에 그룹은 각자의 도시에서 이런 너그러움이 살아 있는 “장소”를 찾아낼 수 있다. 도시지도를 보며 이런 장소를 표시할 수 있다. 표시된 곳은 이러한 덕이 실행되는 장소이고, 시민들과 청소년들 또한 힘을 보탬 수 있는 장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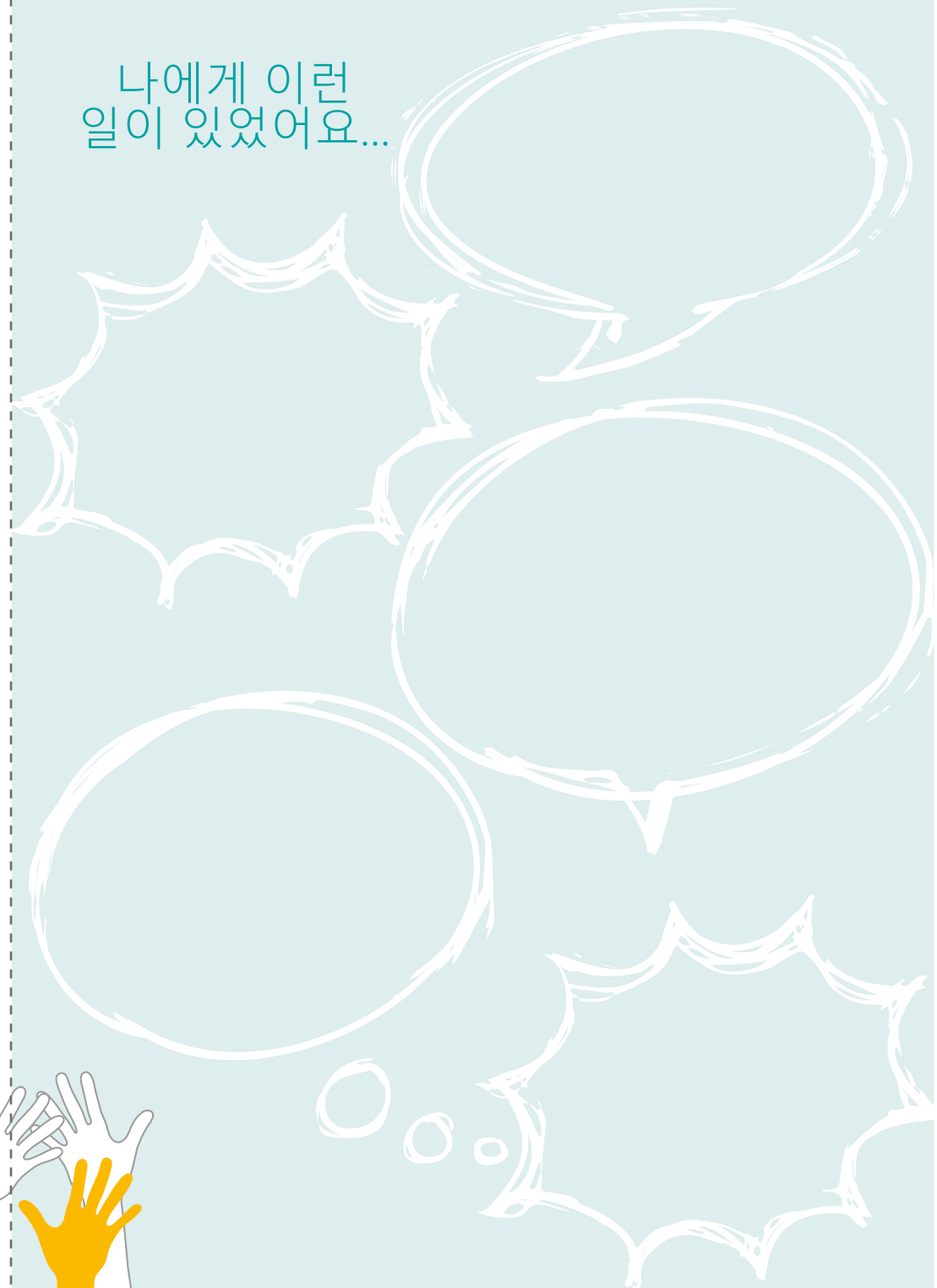


## 이렇게 살아요

모든 일은 어느 저녁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가족의 3젠들을 만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가족의 집에 난로가 없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그곳을 떠날때 "가만히 서서 난로가 오길 기다릴 수는 없다"라고 말하며 난로를 꼭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중 누군가의 창고에는 쓰지않던 난로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기쁘게 내어주셨습니다. 팔레르모의 고통체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즉시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라 즐길 생각에 뜰떠있는 또래들로 주변은 붐볐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생각에 우리는 서둘러고 정말 기쁨에 가득찼습니다. 이 경험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이 태어났는데, "바구니" 사업입니다. 우리는 빈 시장바구니를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나누어주며 가난한 이들에게 전달할 먹거리로 채워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저희는 짝 찬 장바구니가 도착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의 명단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누구에게 주어야 할지 선택이 남감한 경우도 많습니다.

(팔레르모- 이탈리아)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만  
만약  
행복  
할  
수  
있  
는  
요  
기  
가  
있  
다  
면...



## 깊이 있게

### «주는 것, 우리가 선택한다»



베라 아라우조 (사회학자), 주는 문화  
- 2002년 수퍼3젠대회 - 소년 포럼 -  
로베아노, 2002년 5월 28일

주는 문화에 대해  
말해주시겠어요?



두가지 종류의 문화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삶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두 가지 방식, 한편으론 각자의 이해와 안락을 찾는 개인주의가 있는데 바로 이런 개인주의에서 태어난 문화를 우리는 '소유의 문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물건을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많은 사람들과 젊은이들의 생활 방식을 지배하는데 그들의 선택은 소비주의에 매달려 소유하고 싶은 채워지지 않는 열망으로 인해 좌지우지 됩니다. 이런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공격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하며 분쟁을 일으키고 사회생활의 긴장을 가져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 민족들 사이의 전쟁을 불러오는 주인공이 됩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가려진 전쟁. 이 소유의 문화가 한 종류입니다. 하지만 유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문화



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소유문화에 대신하는 문화이자 새사람의 문화, 새젊은이들의 문화로 이는 더이상 개인주의적이지 않고 이타적이며, 소유자가 아닌 내어주는 자의 문화입니다. 이렇게 앞서 말한 문화를 대체할 수 있는 문화가 바로 '주는 문화'입니다. (...) 하지만 이 문화를 살고 우리것으로 하고자 한다면 먼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어야 합니까? 알아서 '주는'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행위가 아닌 예술인데, 나름대로의 스타일이 있고 고유의 행동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주기 위해선 주는 것의 특징을 이해하고 습득하여 합니다. 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잘 주는 것이 더 요구됩니다.

그러면 첫번째 주는 것의 특징은 무료라는 것입니다. 공짜로 주어야 합니다. 주는 것은 이해가 따르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보답받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잘난척 하기 위해 주는 것도... 다른이들에게 내보이기 위해 준다면 이것도 진정한 의미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것은 공짜입니다. 이것이 첫번째 특징입니다.

주는 것의 또다른 특징은 기쁨입니다. 기쁘게 주어야 합니다. 충만한 기쁨. 복음에 예수님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 기쁨이 크

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칼쿠타의 마더 테레사는 "기쁘게 주는 사람은 가장 좋은 방식으로 주며 더 줍니다. 하느님은 기쁘게 내어 주는 이를 사랑하십니다. 줄 때 오는 기쁨은 매우 심오한데, 줄 때 받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기쁨, 가득한 기쁨은 주는 것의 또다른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는 것의 세번째 특징은 풍요로움입니다. 세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너그럽게 주는 것입니다. (...)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더 테레사는 아

...여기가 있다면...  
행복할거야!  
나를 수 있는  
나를 수 있는  
나를 수 있는



다운 말을 남기셨는데, “청하는 것에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남는 것은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기 아까운 것을 주십시오. 저는 남는 것은 받고 싶지 않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중 무언가를 저에게 내어주길 바랍니다.”하고 하셨습니다. (...) 그런데 다른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재물은 영성적인 것입니다. 다른이들에게 주어야 할 첫 선물은 바로 우리 자신으로, 사랑, 우정, 평화의 선물, 환영, 경청, 우리 자신, 영성적인 선물입니다. 한번은 끼아라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누군가가 자기는 가진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라고 하였고, 계속해서 “여러분은 부유합니다. 예를 들면 체력과 지능이 있습니다. 마음의 애정이 있습니다. 다른이에게 보일 친절

이 있고 나누고 싶은 기쁨이 있습니다. 내어줄 시간이 있고, 기도와 말과 글로 나눌 수 있는 내면의 부유함이 있습니다. 어떤때 물질적인 재산도 있는데, 가방, 펜, 책, 돈, 여러가지를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는 문화를 산다면 우리는 새로운 사고방식, 즉 **새롭게 보고 생각하는 방식을 얻으며 실제로 소유의 문화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권력을 쥐고 싶은 열망을 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이들 사이의 공유(친교)가 실현되고, 앞서나가 마음의 일치까지 실현시킬 수 사회를 건설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어른들과 함께 여러분들은 구경꾼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인공으로서 새로운 세계의 건설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는 문화를 통해 새로운 세계가 가능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



## 저는 하느님만을 선택했습니다

끼아라 루빅,  
1979년 7월  
생활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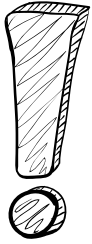


(...) 그의 이름은 엘레또입니다. 젊고 키 크고 잘생기고 똑똑하며 부자였습니다. 하느님으로 부터 그를 따르라는 부르심을 느꼈을 때, 한시도 주춤하지 않았습니다. 한치의 뒤도 돌아 보지 않았다. 마치도 그에게는 부유한 재산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기부했습니다. 한 소년을 구하려는 사랑의 행위를 하다 33세의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그를 기억하는 비석에는 그의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하느님만을 선택했습니다. 그 외엔 아무 것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니다.”** 엘레또는 분명히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마태오 19,24)라는 말은 다시 듣지 않았을 것이다. (...) 당신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이 특별한 인상을 주었습니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도록 노력해 봅시다. 예수님은 재산 자체를 부당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재산에 애착을 못 끊는 부유한 이를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것이 하느님께 속해있는데** 부자는 모든 부유가 자신의 것인냥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유한 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자유로운 마음을 지니고 완전히 하느님께 열려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한 재산의 관리자로 느껴야 합니다. 이 땅의 재산은 그자체로 나쁜것이 아님으로 멀리할 필요는 없지만 **잘 사용해야 합니다.** 손이 아닌 마음이 재산으로 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른이들의 선을 위해 얼마큼 잘 이용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있다면...  
육기가 있다면...  
나를 행할거야!  
나를 행할거야!  
나를 행할거야!





## 한번 시도해봅시다!

끼아라는 3젠들에게 그 또래 사이에 '주는 문화'를 알리는 사명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도시의 일치를 위한 소년 소녀들에게 이 현실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일치를 위한 소년 소녀 운동 비서국에 물어보고 여러분 도시의 또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벤트나 활동을 준비하십시오. 그 이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교감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실천사례를 찾는다

- 보따리 싸기. 내가 가진 물건이 불필요하게 너무 쌓이진 않았는지 혹시 나보다 다른이들에게 더 필요하지 않은지 판단한다. 우리가 모은 것들을 지역 공동체나 필요한 사람들 사이에서 순환하게 한다.
- 어려움에 처한 가족이나 친구를 찾아서 구체적으로 돕는다.
- 우리와 함께 재산의 공유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어떤 지역에선 각자나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 등의 정보를 나눌수 있는 비공개 페이스북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나눔만약 행복을 나눠줄 수 있다면...  
용기가 있다면...



## 우리 어디까지 와 있나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선 매일 매일의 훈련이 필요하다. 부딪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얻은 긍정적인 변화는 메모해 두자. 다음 모임에 체험을 나눌때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주는 문화를 구체적으로 살 수 있었나요?

누구와 살 수 있었나요?

무엇을 나누었나요?

내 내면과 내 주변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 보조자 공간



### 모임 후 평가하기

- ③ 제안한 활동을 통해 3젠들은 진복팔단에 대해 흥미를 더 키웠습니까?
- ③ 3젠들 사이에서 특별히 마음의 가난을 살기가 힘든 분야가 두드러져 나왔습니까?
- ③ 이를 몸소 실천하기 위해 3젠들은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그들이 한 결심에 흔들림이 없도록 다음 모임때까지 그들을 동반하고 지탱하는데 집중합시다.
- ③ 모임에서 다룬 주제가 결론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다음 모임때 다루어야 할 부족한 점이 남아있습니까?
- ③ 모임 진행 중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다음번 모임을 향상시키기위해 염두해야할 것이 무엇입니까?